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광주 동구 서남동 지역은 현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2024년까지 80년 역사를 가진 ‘인쇄의 거리’ 일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인쇄의 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정율성 유적지, 웨딩의 거리, 518유적지인 구 적십자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 인근에 충장로, 전일빌딩, 동명동, 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등도 있다. 각각의 특별한 개성과 의미를 지닌 건축물이 사업 구역 및 인근에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 물론 현재는 쇠퇴해 있지만 과거 명실상부 광주의 중심이라 불리던 지역이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재생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가까운 미래에 다시 광주문화관광의 중심지로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구시청 일대의 경우, 광주 동구청과 지역민이 2006년부터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2014년 문화중심도시 선도 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함으로써 2015년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남도 음식을 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

개하고 아시아 각국의 이색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아시아음식문화거리의 취지에 맞지 않는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 등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유흥주점이 들어서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임대료를 내놓은 점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딜 가야 아시아음식을 먹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점심에는 문을 닫고 저녁에는 술집밖에 없는데 유흥거리가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온다. 오래전부터 구시청 사거리는 술집 거리일 뿐 아시아음식문화거리라는 거창한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최초 14개의 아시아음식 전문점이 생겼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배달 전문으로 하는 베트남 쌀국수집만 남아 있는 듯하다. 대부분 음식점이 임차비 지원이 끝나자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여러 매체에서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조성사업의 방향 제시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광주 도처에는 음식을 주제로 한 거리가 많다. 월곡동 세계음식문화거리, 유동 오리탕 골목, 송정리 향토 떡갈비 거리, 동곡동 꽃게장 백반 거리 등 공식·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음식 관련 거리들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또는 과거부터 동종 음식점이 밀집한 역사적 특성이 있어서 등 음식거리 조성의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상권 활성화라는 한 가지 목표는 다들 다

르지 않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동구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의 2021년 활성화 계획 진행을 알렸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음식공방, 상징조형물, 야간경관과 거리정비와 같은 가로환경 개선 등을 비롯해서 아시아음식점 입점 유지, 음식문화축제와 같은 콘텐츠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활성화 사업의 진행 방식으로는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 주도형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도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관 주도 사업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민간 주도의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항상 주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나 활성화사업을 시행해 보면, 민간 주도 사업은 사업에서 진행의 협조와 지속 가능성 등의 장점은 있지만 확실한 해결 방법은 아닌 듯하다. 사업의 진행에 있어 예산 집행이나 절차의 문제 등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이다.

행정에서는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전문직 공무원을 두고 이런 사업들이 시작부터 결실을 맺을 때까지 관련 업무만 담당함으로써 진행되는 상황과 함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가 축적된 전문가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민간주도에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조화를 이뤄만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社說

광주·전남 초광역협력사업 정부 적극 지원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초광역 협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보고회’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광역 협력’을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 협력’은 광역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최근 논의가 활발한 메가시티 구상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한전 본사와 인근 산업단지 내 곳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축, 인공지능으로 광주시와 인근 5개 시·군을 하나로 연결하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를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이에 더해 광주·전남 광역경제권 구축과 전남 및 부산·울산·경남의 관광자원과 SOC를 연계한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현재 메가시티 구상은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네 개 권역에서 광역지자체들의 주도로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은 상호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군 공황이전 갈등 등에 발목이 잡혀 다른 지역에 비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양 시·도는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차기 대선 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균형 발전에서 소외돼 온 광주·전남의 초광역 협력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압적 태도’ 법정은 시민들 안중에도 없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게 있다. 시민들을 법세우는데 대한 고압적인 법정 분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도 피고인의 사건 기록 열람을 어렵게 하는 검찰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재판 운영 방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법정 방문석에 앉아 있다가 “다러 꼬지 마세요” 같은 말을 듣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방청객에게 마치 학생을 가르치는 듯한 고압적 주문을 하는 건 지나치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검사가 판사가 예정 시각보다 늦게 법정에 들어와 방청객과 당사자들을 기다리게 해놓고도 별다른 양해의 말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지난 3월에는 공판 검사가 늦게 출석, 재판부와 20여 명의 방청객들이 기다리는 상황 끝에 선고 재판 시각을 10분 늦추기 위해 휴정하는 일도 있었다.

일부 재판부와 변호인 및 검사가 법정 내 설치된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방청객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서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작게 들린다. 시민들에게 잘 들리지도 않는 법률용어를 자신들끼리 주고받으며 재판을 진행하는 관행은 공판중심주의와 공개재판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기록과 증거 기록의 열람·복사를 제때 할 수 없어 재판 준비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침해를 받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열람 복사 신청을 해도 검찰이 아직 조사 중이라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오기 일쑤라는 것이다.

검찰 사법 개혁은 거창한 게 아니다. 시민들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는 재판 진행이 그 시작이다. 그것은 땅에 떨어진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가을 햇살이 다사롭습니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도로변에서 노랗게 말라 가는 벼들, 마당에서 빨갛게 말라 가는 고추, 산과 들 사이로 산들산들 부는 바람을 만날 수 있는 활동하기 썩 좋은 계절입니다. TV를 끄고, 집 주변이나 공원을 산책하듯 호젓이 걸어 보시지요.

가을 들판이 시나브로 비워집니다. 짝 찢던 공간이 추수가 끝나면서 여백을 넓혀갑니다. 나무들도 열매를 떨어뜨리고 강물도 차갑게 맑아집니다. 관찰합니다. 다들 소리, 자연의 순환이라고들 하지요. 그 속에 나도 덩달아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늙고 힘없고 아파도 관찰합니다. 관찰지요. 그 순환의 일원으로 끼어 있다는 것, 그 삶이 눈부실 따름입니다.

멀리 여객선이 지나갑니다. 갑판 위에 가족들의 모습이 정겹네요. 그들의 여행길에 행운을 빕니다. 저는 지금 갈대 줄렁이는 시냇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록 홀로 걸어도 가을 서정과 함께 하는 여행은 비행기나 유람선 여행보다 훨씬 더 자연과 밀착되고 자아를 만날 수 있는 참된 여행이랍니다.

도화지로 들어서니 건물들이 하늘을 찌릅니다. 높고 큰 집들만 높은 것이 아니네요. 집값도 덩달아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관찰합니다. 내 몸 하나 낼 수 있는

관찰다 관찰아

방 한 칸 있으니까요. 간혹 벽에서 들려오는 이웃집 소리가 외롭지 않고, 집주인에게 쫓겨 다른 곳에서 살아 보는 것도 행복합니다. 내 집이 아닌들 어찌합니까. 평생 무소유로 살다간 스님도 있었으니, 처마 밑 제비집이나 감나무 꼭대기 까치집에 비하면 별장이 따로 없지요.

잘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좋은 집에서 맛있는 것 먹고, 멋진 차를 타는 일상이 잘사는 삶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봅니다. 산다는 것은 걸치레가 아니지요. 가족과 화목하고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며 세 끼 굶지 않고 누울 자리 있으면 그것도 잘사는 것이지요.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볼 때, 당신도 우리도 잘살게 됩니다. 세파에 쫓기지 않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사는 삶도 썩 관찰합니다.

가을비를 맞아 몸이 으스스하다고요. 어쩔 감기에 걸릴지 모르겠다고요. 어디 며칠 아파 공공거리면서 오래도록 병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노동자, 장애인, 소외당한 노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 곁으로 몇 미터라도 다가갈 수 있다면 서너 날 감기쯤은 관찰합니다. 몸은 좀 아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네요.

학생들이 재잘거리고 있습니다. 시험이 코앞이랍니다. 시험이 끝나면 결과가 좋지 않다고 불평일 것입니다.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라고 하지요. 살다 보니 시험은 특별한 날에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시험이더군요. 오늘도 저는 제 성적표를 매겨 봅니다. 친절하지 않았네요. 부모님께 전화도 못했고, 오늘 일을 마무리 짓지도 못했습니다. 제 성적은 이렇게 언제나 뺑뺑입니다. 그래도 관찰합니다. 오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

시험이고 공부이지요, 그러니 오늘 성적에 조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통 선거 이야기네요. 친구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될까 걱정입니다. 어디 뜻대로 인생사 술술 풀리던가요. 설혹 내가 지지한 사람이 떨어졌을지라도 당선된 사람은 더 많은 이의 사랑과 선택을 받았으니 그것도 관찰지 않나 싶습니다. 나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면 너이고 이웃이며 우리입니다. 나를 버린 만큼 네가 더 잘 보입니다. 내가 편해지고 내가 더 행복해지지요.

헤어지자는 친구의 말에 속상하다고요. 변함없는 사람이 그림자라고요. 그렇습니다. 재형무상이라고, 10년 이면 강산은 물론 세상은 다 변하는데 어찌 사람이라고 변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다른 곳에서 잘 살면 언젠가 불 일이 있겠지요. 지금 좀 서로 불편해도 이 또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잠깐의 이별이든 영원한 설행이든 관찰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물질이 풍요롭지 않아도, 오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은 절거나 예쁘지 않아도 관찰합니다. 그까진 것, 타인의 시선으로 보이는 나,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지구분을 보듯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좀 떨어져서 세상을 관조하며 작은 것에서 충만을,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아가자기한 것에서 보람을, 그냥 존재 자체에서 행복을, 작은 관계에서 사랑을 느끼며 산다면 그것은 스스로 내가 만들어 가는 인생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니 관찰합니다. 아니 만족해도 됩니다. 가을 들판이 텅 빈 상태로 불을 준비하듯 텅 빈 마음에서 진정 충만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럭저럭 살아가는 세상일지라도 없어도, 비어도, 부족해도 관찰고 또 관찰합니다.

기고



김성안
전남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한국 정부가 2023년 제28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 유치 추진을 공식화하자, 다수의 광역자치단체가 이 행사의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에 대해 적극적으 큰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이처럼 COP28을 위한 유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 생존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가 기후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화이트 바이오(White Bio)산업이다.

화이트 바이오산업이란 콩·옥수수과 같은 식물 등의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효소 등을 활용해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석유계 플라스틱 등의 탄소 기반 제품을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면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든다. 또한 원료인 바이오매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비밀 정원, 농업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짝을 수 있는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친환경성이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분해 기간은 6개월에서 5년 수준으로 페트병 450년, 비닐 20년에 비해 상당히 짧다.

이런 화이트 바이오산업은 크게 성장해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8년에는 5609억 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렇기에 미국 등의 선진국과 바스프(BASF)와 같은 세계 주요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연구와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망한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화이트 바이오산업에 있어 농업은 멋지고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는 소중한 비밀 정원이다. 그러므로 농업도 화이트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갖고 다음의 것들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화이트 바이오용 우량 품종의 개발 및 농가 보급이다.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대표 제품군은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매스로 기반한 화학제품과 차세대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원료 농산물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고 품질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배, 유전자 가위, 방사선 육종 등을 통해 우량 품종을 개발하고 신속히 농가에 보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화이트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해 산업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상품, 바이오 연료 및 화학제품 등으로 생산해 판매하고, 사용 후 폐기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등을 회수해 자원화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도에는 굴지의 화학기업들이 있고 농경지도 전국에서 가장 많아 아주 매력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화이트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화단지가 전라남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농업과 화이트 바이오산업이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밸류 체인(Value Chain)의 개발 및 고도화이다. 이를 위해 농가·바이오리파이너리(Biorefinery)·화학기업 등이 연대하고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장 선점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협업 과정을 통해 화이트 바이오용 품종의 개발과 생산,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련 제품 판매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 소중한 비밀 정원의 농업에 의해 화이트 바이오산업이 어서어서 무럭무럭 자라나 인류와 지구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더 강력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목숨에도 값이 매겨진다.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목숨에 얼마만큼의 가격이, 또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이 있다. 최근 통계학자이자 보건경제학자인 미국의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이 쓴 ‘생명 가격표’라는 책이다.

여기에는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가 주요 사례로 등장한다. 당시 미국 정부는 2977명의 사망자와 2만 5000여명의 부상자에 대해 한 보상을 위해 ‘희생자 보상기금’을 마련했다. 미 정부는 4년여의 조사를 거쳐 희생자 1인당 평균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억 원씩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이 금액에는 희생자의 나이와 소득 및 부양가족 등 거의 모든 변수가 감안됐다.

또 다른 사고의 경우, 예를 들어 1989년 인도 보팔 지역에서 발생한 유니언카바이드 가스 폭발 사고에선 당시 4000여명의 희생자들의 생명 가격으로 1인당 6만 달러가 매겨졌다. 이밖에 2013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공장 붕괴 사고에선 1100명의 사망자에게 1인당 4만 달러가

목숨값으로 지급됐다.

이들 사례 가운데 정부가 보상에 개입한 9·11테러의 경우 희생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인종·성별·나이·소득에 따라 그 아발로 천차만별이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인간이 천부적으로 지니고 있는 목숨값’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이 책정됐다. 20년 전 금액이라 현재 가치와는 차이가 많은 데다, 그 금액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 정부가 국회 및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지급했다는 점에서 사람의 목숨값에 대해 한 국가의 가치관이 반영된 하나의 기준이 된 것도 사실이다.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32세 청년이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뜨거웠다. 하지만 그 돈이 산재 위로금이 라는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따라서 ‘위로금=50억 원’이라는 등식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인되지 않는 수준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에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